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 제2강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_7월 7일(화) 오후2시~3시

#### 1. 성경이 쉬워지는 3가지 방법

- 1).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기
- 2). 자세히 읽으면서 **아는 것에 집중**하기
- 3).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2. 본문연구

##### 1). 갈라디아서 1:11~24

바울은 자신이 전한 교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행한 일과 그 직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도권 뿐만 아니라 전하는 복음 역시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증명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 계시(reveal) :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정(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것

제임스패커의 계시와 관련한 기본질문과 답변(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용어 17)

첫째\_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_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_우리는 어떤 자세로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경청하고 감사함으로

<b>1절</b>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b>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b> 된 바울은	<b>11절</b>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b>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b> <b>12절</b>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b>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b>
사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내가 예전에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열심 이었다.

※ 바울의 과거\_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디모데전서 1:13)

성경	내용
사도행전 8:1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김
사도행전 8:3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
사도행전 9: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9:2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건 내의지가 아니다.

※ Tip : 택정하시고 ▶ 택 같(라디아서) 하(한,1장) 시고(십오, 15절) =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회심 후 혈육과 의논하지 않음 :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함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

**18절**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라비아 3년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15일만 머무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남 : 단순한 방문 목적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 본적이 없지만 과거에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따를 뿐 아니라 열심히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마무리하며\_복음을 받은 사람(바울)의 특징

첫째\_과거의 삶을 재해석 합니다. (13,14절)

둘째\_과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 합니다. (15절)

셋째\_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사모합니다. (16,18절)

## 2). 갈라디아서 2:1~10

바울은 여러 해 뒤에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 이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한 세 사도들과 만났지만 어떤 새로운 지식도 더하여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절**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게사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 동일 예루살렘 사도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사사로이 : 공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 비해 부족하고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같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음, 할례를 구원을 위한 필수행위로 생각하지 않음(바울과 똑같은 생각) 구원 얻는데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옴

###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잊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자꾸만 빼앗으려 하는 거짓 교사(믿음 외에 자꾸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함)

###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교사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뿐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

###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하다는 이들(2절 유력한 자들, 7절 도리어 그들은, 9절 야고보, 게바,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유력한 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떤 새로운 교리를 배운 적도 없고,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음

###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도 바울을 인정한 것이죠. 마치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하도록 계획하셨고,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일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

###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같다.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음이다.

### 9절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

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 기둥 같이 여기는 :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지탱하게 하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증표로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부탁,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구제사역에 힘씀

## 마무리하며\_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첫째\_복음을 열심히 배우는 것(신앙고백서, 성경공부)

둘째\_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서로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제는 더욱 풍성해짐)

셋째\_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

3). 갈라디아서 2:11~16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한 뒤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도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일을 전혀 꺼리지 않았습니다. 소위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밥그릇을 들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있던 바나바도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깎아 내리려고 혹은 개인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책망함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때문에 식사를 중단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부로 교제(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가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음을 책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유대의식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야고보에서 온 이들의 방문에 베드로는 마치 유대인의 의식법을 지켜야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함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밥상머리를 엮어 버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한 것은 복음을 위한 응전입니다.

만약 바울이 조용히 넘어갔다면 복음은 또 다시 변질되고 거저 주시는 은혜는 무시될 것이며, 의식법의 준수는 필수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자유는 상실됩니다.

마무리하며\_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_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것(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둘째\_복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하는 것(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책망)

과제 1). 다음 주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3장 22절 읽어오기

2).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8월 11일 까지)